

1929 광주 소녀들의 연대 오늘, 연극으로 태어나다

내달 7-9일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소녀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소녀들'의 목소리가 연극으로 되살아난다. 역사 속에 기록되지 못한 평범한 여학생들의 선택과 연대를 조명하는 무대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은 오는 5월7일부터 9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26회 정기공연으로 연극 '소녀들'을 선보인다.

제3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전막 초연

광주여고보 '소녀회' 실화 바탕 창작극

'소녀들'(이난영 작, 김지훈 연출)은 광주여고보 비밀 독서모임 '소녀회'를 중심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백지동맹 등 항일운동에 나선



연극 '소녀들' 배우들

던 여학생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창작된 작품이다. 거대한 역사 이면에 가려졌던 개인의 내면과 선택을 따라가며, 소녀들이 어떻게 시대를 자각해 나가는지 담아낸다.

극은 유복한 양조장 집 딸이자 문학소녀 '연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낭만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던 연선은 친일과 아버지 아래에서 시대의 현실을 마주하고, '소녀회'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인식해 간다. 개인의 감정에서 출발한 변화가 집단적 연대로 확장되는 과정이 무대 위에서 밀도 있게 그려진다.

작품에는 '금수회의록', '을지문덕', '만세전' 등 당시 금서(禁書)가 등장한다. 이 책들은 소녀들에게 지식을 넘어 시대를 밝히는 매개이자 저

항의 도구로 기능한다. 한편 '데미안', '돈키호테' 등 고전 문학은 연선이 새로운 선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번 공연은 '제3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을 전막으로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여섯 차례 낭독공연과 각색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무대에는 고영욱·김세희·김형욱·노현지·박영국·오창선·이명탁·이유진·이종경·이지은·정은지·정일행·조아라·차상경·한준근 등 배우들이 참여해 당시의 긴장감과 에너지를 구현한다.

공연에는 실제 배경이 된 광주여고보의 현재 학교인 전남여고 학생들이 단체 관람에 나선다. 개교 100주년을 앞둔 전남여고에서 선배들의 삶을 후배들이 객석에서 마주하는 자리로 마련된

다. 작품은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각'의 의미를 되짚는다.

김지훈 연출은 "주체적인 여성의 연대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연대했던 시민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7일 오후 7시30분, 8일 오후 2시·7시30분, 9일 오후 4시·7시30분 총 5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다. 작품 속 등장하는 책을 지참하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연극 '소녀들'

나만의 인생샷...과학관 페스티벌

오는 24일 국립광주과학관

성인 대상 야간 프로그램 운영

4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음식과 음악, 강연이 어우러진 과학관에서 색다른 야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오는 24일 성인 관람객을 위한 올해 첫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찰나를 담다'를 주제로 '사진'에 대해 다룬다. 오후 6시10분부터 9시30분까지 빛

고을탐을 비롯한 본관 전역에서 열리며, 19세 이상 성인 9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1부에서는 빛고을탐을 배경으로 '최가네 어쿠스틱 밴드'의 봄날을 주제로 한 공연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만찬(뷔페)과 맥주 등 연회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2부는 천체투영관에서 이어진다. 스마트폰 사진 전문가 '담이' 작가가 '내 인생을 빛내줄 스마트폰 사진'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촬영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체험 시간에는 '사진 특별전-인생샷



지난해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행사 모습.

연구소' 기획자의 해설과 함께 전시 관람이 진행된다. ▲즉석사진 촬영 ▲나만의 인생샷 머그컵 만들기 등 사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스마트폰 광각렌즈 세트가 제공된다. /최명진 기자

시·노래·유머 넘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내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

한국 감성 충전&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은 오는 23일 오후 1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2층 공연장에서 제4회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대중가요부터 민요, 색소폰 연주, 성악 무대, 발리댄스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먼저, 가수 김현구의 '그것 팔자', '이별의 부산 정거장' 무대로 공연이 시작된다.

이어 가수 오세요의 '청춘화살', '복 들어 오세요' 공연과 함께 색소폰 연주자 류수현의 '봄날



은 간다', '보릿고개' 연주가 펼쳐진다.

양석승 소장은 '고향무정', '홍도야 울지마라'를, 가수 고완심은 민요 '성주풀이', '님 오신 목포항'을, 성악가 유창종은 '보리밭', '오 나의 태양'을 들려준다.

공연의 대미는 발리댄서 김정희의 발리댄스 무대로 마무리된다. /최명진 기자

희망·고난 속 재편된 한국근현대미술 조명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2강

광주시립미술관이 2026 미술관 아카데미 '예향의 맥(脈): 한국근현대미술 속 광주를 읽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희망과 고난의 소용돌이에서 - 광복과 전쟁, 재편되는 미술계'를 주제로 하는 이번 강연은 22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1945년 광복 이후 민족미술에 대한 열망과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며 재편된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다룬다.

특히 광복 직후 미술인들이 꿈꿨던 민족미술의 이상과 전쟁 이후 이념이 작가의 삶과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을 짚는다. 아울러 월북과 월남으로 갈라진 중앙 화단의 변화와 함께 빨치산 활동을 통해 드러난 지역 미술계의 움직임에 비교하며 당시 화가들의 선택과 의미를 살펴본다.

강의는 미술사학자 조은정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초빙교수가 맡는다. 조 교수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미술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개



지난 8일 열린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1강 모습.

하기 이후 한국미술과 서양미술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 '한국조각기의 발견', '권진규',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공저)', '김복진 의 예술세계(공저)' 등이 있다.

윤의 관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근현대미술의 흐름 속 한국미술과 광주·전남 미술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좌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60명 선착순 예약제로 무료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장차 지원과(062-613-7138) 문의.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